

일 주 문



진각종, 부처님 열반절 기념불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2월 15일 전국심인당에서 '부처님 열반절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3월 10일 템플스테이 교육공간인 불교수행교육관 개관식을 주관한다.



조계사 선림원 입학식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선림원 입학식 및 개원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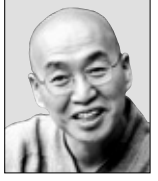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나눔의 집 원장 원형 스님은 3·1절을 맞아 3월 1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를 진행한다. (031)768-0064



원혜 스님 대전청 경승실장 위촉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2월 10일 대전지방경찰청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마주협 2011 정기총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회장 기관 스님은 2월 24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평화재단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2011년 3월 10일~6월 9일 제4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운문사 법계장학금 전달식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명성 스님은 2월 16일 운문사에서 제9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혜인 스님 등 6명에게 각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우치과 구강건강 캠페인 정미화 연우치과 원장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캠페인 실시한다. (02)733-1034



불교여성개발원 GEP 사업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3월 12일~5월 21일 글로벌 인콰이먼트 프로젝트(GEP)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봉사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기도합시다

'불광사김밥가게' 개업 앞둔 보 광 스님



"주위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뤄내는 것이예요.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누군가 소원을 이뤄줄 것이라고 믿지만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일어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한다면 분명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5월 '(가칭)불광사김밥가게'를 개업한다. 더욱 많은 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불광사는 넉넉지 않은 작은 암자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김밥가게는 지난 3년간 지역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나눔과 무료급식 등 자비나눔의 결실이자 더 큰 나눔을 위한 씨앗이다. "갈수록 정진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3년간 옛 선사스님들의 치열한 수행의지를 되새기며 신도들과 함께 5대 적멸보궁 심보일배 순례기도를 했습니다. 문득 순례하며 느낀 환희심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회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2009~2010년 겨울 전국 5대 적멸보궁을 심보일배 순례기도로 수행을 게을리하는 풍토에 경중을 울렸다. 약 750km에 이르는 길 위에서 150여 일간의 심보일배 순례기도에서 돌아온 스님은 강경군으로 약해진 몸을 추스른 뒤 바로 지역 내 홀로어르신 가정을 찾아 반찬배달을 시작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입구 무료 급식소에서 월 2회 대중공양을 대접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본래 기도의 '원(願)'과 봉사의 '행(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치열한 자기 수행 뒤에 따르는 환희심을 이웃을 위한 자비행으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보광 스님은 봉사활동을 이어갈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여전히 많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부족한 봉사활동기금 마련을 위해 과제방학원에 등록해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5월 개점할 '불광사김밥가게'도 부족한 봉사활동기금마련을 위한 것이다. "불광사가 있는 초음동은 변화가인 서면과 근접하지만, 무너져 내리기 일보직전의 판자집도 있고 홀로어르신은 700가구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0가구에 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김밥가게 수익금 전액을 봉사활동에 쓴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전해질 것이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환희심이 듭니다." 보광 스님은 앞으로 반찬배달을 2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하고, 월 1회 부산역 광장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 등 공양할 계획이다. (051)809-1420 제일은행 이정민 510-20-215356 박자원 기자

젊은 여성불자 중심 회원 배가운동 펼칠 터

한 재 숙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제7대 신임회장

"여성불자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참여회원 7000여 명으로 확대, 육아교육·방과 후 학교·가사동기·여성일자리 창출 등 여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재숙(63,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2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제7대 신임회장에 추대됐다. 한재숙 신임회장은 참여회원 배가 운동, 다종교 사회의 조화와 성숙을 위한 세미나, 종파를 초월한 연대사업, 녹색환경 구현,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10~20년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여성불자들이 사회의 주류 리더양성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교육사업은 국가시책이나 세계 흐름에 긴밀하게 대처하고, 서울시와 여성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젊은 여성불자 영입에도 나선다. 사회 활동에 대한 심화 교육과 육아와 가정생활 등에 대한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사에 신경 쓰지 못해 생기는 공백을 노년층의 기존 회원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여성들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노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마음을 열고 종교간 소통에 나선다면 종교간 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다. 북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폭넓은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만발공양비 이주민노동자에 회향

양주 청련사(1월 안정사) 주지 백 우 스님

"모든 중생들이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겠다." 1200여 년간 서울 하왕심리에 자리했던 신라 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주지 백우)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으로 도량을 옮긴 뒤 첫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백우 스님은 2월 17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동안거 해제 법회를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동안거 수행의 공덕을 삼처에 회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스님은 신도들이 올린 '만발공양비' 200만원을 모아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노동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양주시청에 지원 대상 이주민노동자 섭외를 요청했다. 백우 스님은 이번 성금 기탁을 한 배경에 대해 "방송, 언론매체 등에 외국인 이주민노동자들의 소식을 보고 그분들이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방송이 좋게 보면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지만 넓고 크게 보면 고난에 처한 중생을 구하는 것도 방송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의 뜻을 모아 이주민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우 스님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와 도림 선사의 유명한 일화를 들려줬다. 스님은 "백거이는 도림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라고 묻자 도림 선사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라. [諸惡莫作 衆善奉行]'라고 대답했다"며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무명에서 해탈할 수 있다. 무상의 도리를 알고 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역사시대의 마음으로 입장을 바꾸어 상대를 생각하면 쉽게 선행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안거 기간 동안 청련사 스님들은 안거에 참여하는 신도들과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전통 발우공양을 했다. 백우 스님은 "스님은 수행을 근본으로 한다. 우리가 부처님과 신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는 각오로 발우공양의 의미를 새기며 안거 정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청련사는 1200년 역사를 왕심리에 두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사찰이 이번 안거를 통해 실력과 능력 모두 넘나드는 스님의 사찰, 중생들의 교화도량이자 의지처로 거듭나는 사찰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청련사는 올해에는 외국인 이주민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다. 백우 스님은 "이주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마음을 의지하고 편안히 기릴 수 있도록 준비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련사는 12만 5000㎡(3만 8000평)의 대지에 대웅전과 대적광전, 관음전, 원통보전, 삼삼각 등을 갖춘 대규모 태고종 사찰로 신라 흥덕왕 2년(827년)에 창건된 사찰로 전해진다. 그러다 청련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계층구도 태고종의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커지면서 2005년 도량이전을 결정하고 중창불사를 했다. 또한 안정불교대학을 설립한 청련사는 2011학년도 전통강원, 법배학과 신입생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개강은 3월 7일이며 입학식은 3월 14일에 진행된다. 안정불교대학 초대 학장인 백우 스님은 "선안사 강주를 역임한 운법 스님과 법배학을 전문으로 하는 상진, 일원 스님 등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기존의 법배학과와 더불어 전통강원의 전 교과 과정을 새로 신설했다"며 "부처님의 진실한 법음을 받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행코자 참된 불제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031)836-0827 이나은 기자

2011학년도 안정불교대학(전통강원/법배학과) 신입생 모집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체득케 하고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한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법음을 받아 지니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행코자 하는 참된 불제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도량으로써 신라 천년고찰인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기존의 법배학과와 더불어 전통강원의 전 교과 과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교육과 수행풍토의 진작을 통해 참다운 부처님 나라를 건설할 불교인재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입학 응시를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법배학과 (범음·법배)

Table with 2 columns: 학기 (1학년, 2학년) and 과목 (1학기, 2학기). It lists various Buddhist studies courses and their descriptions.

2. 교육과정 : 전통강원

Table with 3 columns: 학기, 학년, 과목. It lists traditional Buddhist studies courses for 1st and 2nd years.

3. 전통강원과 법배학과는 각 학년 공통과목이며 전통강원과정이나 법배학과의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하다.

4. 입학 안내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1년 3월 7일(월) 오후 3시~6시
○ 입학식 : 2011년 3월 14일
○ 강 주 : 전통강원-운법스님
○ 수업시간 : 법배학과-① 매주 월요일 오후3시~6시까지(기초과정) ② 매주 화요일 오후3시~8시까지(전문과정)
○ 강의장소 : 본 대학 강의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반경합란 사진3매, 입학원서(본교 교학처에서 교부, 작성), 태고종승려 승적증명서 1부
○ 강의과정 : 2년 과정(4학기) (전통강원-법배학과)
○ 접수기간 : 수시접수(원인장은 시험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
○ 접 수 처 :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련사 산 180번지
○ 문 의 처 : ☎ 031-836-0827

안정불교대학 학장 이백우